

주변상권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서울로 7017의 시설물 분석 A Study on the Facilities of Seoul-Ro 7017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with Neighboring Commercial Area

고 룡, 최 희 수*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

Koh Ryung, Choi Hee Soo*

Sang-MYung Univ., Sang-Myung Univ.*

요약

찾길에서 사람길로 변신한 서울로 7017은 단순히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되었다. 서울로는 서울로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공간의 연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주변상권의 재생을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를 계획했다는 것이다. 현재의 서울로는 스스로만 거대하게 존재 할 뿐 주변의 상권들을 연결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서울로의 시설물과 주변 상권을 분석하여 연계강화를 위해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I. 머리말

1970년에 준공된 서울역 고가도로는 1990년대 말부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고 보수공사를 거쳐 유지해왔지만 2006년에는 심각한 결함을 맞이하였다. 차량 전면통제와 함께 철거수준을 밝게 되기까지 8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현 고가차도와 홍제 고가차도도 과거 산업화의 상징이었으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흉물이 되어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서울역 고가차도는 ‘철거’라는 확실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차도에서 사람길로 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¹⁾ 세상에서 가장 긴 육교로 변신한 서울로는 서울의 동쪽과 서쪽을 차가 아닌 사람으로 연결시켰다.²⁾ 차와 사람의 이동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의 역할이 크지만 사람에게 서울로는 이동통로이면서 산책로이다.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과 화분과 같은 조형물들을 설치하였다. 이제 그 시설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II. 서울로 7017의 변화와 주변 상권의 연결

서울역 7017 홈페이지에는 서울역 고가도로를 ‘찾길’에서 ‘사람길’로 재생하고, 단절된 서울역 일대를 통합 재생하여 지역 활성화와 도시 활력 확산에 기여하는 사람 중심 도시재생의 시작이라 설명하고 있다. 단순한 이동통

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재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로를 구분하면 안내소, 서울로 가게와 같은 정보센터, 카페, 베이커리 등의 음식점, 호기심화분, 방방놀이터 등의 전시공간 및 편의시설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시설물들은 순식간에 통과하던 찾길에서 비교적 느리게 통과하는 사람길로의 변화로부터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역은 근대 서울의 출발점이고 하루에 39만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교통요충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근거리의 남대문시장, 명동, 남산공원, 시청 등이 위치한다.³⁾ 서울역 고가는 서울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역할을 위해 설계되었고, 이들 중심부의 공간들을 연결시키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람길로 바뀌면서 이제는 그 역할을 바꾸고자 한다.

III. 서울로 7017 시설물 분석

안내소의 위치부터 살펴보자. 회현역(퇴계로 45)에 위치하는 안내소는 서울로의 시작 또는 끝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안내소이기 때문에 시작점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서울로는 다르다. 서울로의 출입구는 14개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서울역 출입구이다. 현재 서울역쪽은 서울로를 대표하는 시설물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 설계자 및 관계자들도 핵심 포인트로 의식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서울로의 중간부분이지만 안내소는 명백히 여기에 위

1) 서울로 홈페이지

<http://seoulro7017.seoul.go.kr/SSF/H/PRO/010/01010.do>

2) 세상에서 가장 긴 육교의 친근한 말 걸기 - 고재열(기획위원, 시사인 기자)

3) 조명래, 2015, "[도시재생] 도시재생으로서의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검토,"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Vol. 56, pp. 4~19.

치해야 한다. 서울로 7017 및 주변 상권을 안내하는 시설물 및 팸플릿은 안내소에 위치한다. 주요한 시설물을 통해 사람들을 밀집 시켰다면 다음 임무는 사람들에게 주변을 알리는 것이다. 회현역쪽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목적지를 정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이다.

안내소에는 서울로에 관한 안내책자와 서울로의 전체 모습과 역사 및 정보를 보여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즉, 안내소에는 서울로에 관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서울로의 길이와 여러 갈래의 길 및 도시재생을 감안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안내소는 서울로 전체를 통틀어 딱 한군데에만 존재한다. 시작점의 의미로 안내소를 회현역쪽에 위치시켰다면 안내소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서울역 부분은 고가의 폭도 가장 넓은 곳이며 서울로 위에서 보았을 때 가장 넓게 트여있는 서울의 광경을 보여준다. 카페와 자연쉼터 방방놀이터도 이곳에 위치한다. 이곳에 편의 시설 및 놀이 시설이 밀집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이 이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도 좋다. 다만, 충분히 즐긴 사람들이 주변의 상권으로 눈을 돌리 수 있게 유도한다면 어떨까. 서울로에서 이어질 수 있는 길은 만리동과 남대문 상가만이 아니다. 백범광장과 남산길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만리동 광장을 넘어 손기정길로도 이어질 수 있다.

IV. 결론

서울로 7017은 '지역 활성화와 도심 활력 확산에 기여하는 사람 중심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라 설명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서울로 안으로 모여든 사람들을 다시 주변 상권으로 이동 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로는 안쪽에만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강화유리를 통해 기존의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시설물도 주변이 아닌 서울로 자체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울로 안에 위치한 원기둥 모양의 가게들의 창문은 바깥쪽이 아닌 서울로 안쪽을 향하고 있다.

외부 건물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공모전 영상을 보여주는 형식과 만리동 광장의 설치작품은 사람들의 시선을 외부로 끌어내고 건물로 통하는 연결 통로는 사람들을 발걸음을 외부로 이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서울로와 함께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며 이것들과 연계되어 주변 상권으로 이끌기에는 부족하다.

서울로 홈페이지에는 서울역 일대 즐기기는 카테고리를 따로 마련하여 이 논문에서 언급되었던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지금 현재 조성된 프로젝트 공모당선작 소개에는 서울로를 서울수목원(The Seoul Arboretum)이라 이름 짓고 단순한 기념물로서가 아니라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돌아서는 과정으로서의 공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로는 이용자에게 공간과 공간을 연결 하는 거대한 육교의 느낌이 아니다. 서울로의 당위성

을 마련하기 위해 밖이 아닌 서울로 그 자체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 참고 문헌 ■

- [1] 조명래, 2015, "[도시재생] 도시재생으로서의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검토,"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Vol. 56, pp. 4-19.
- [2]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소식지 「서울역...後」, 제6호, 2017
- [3] 정지석, "조명색변경에 따른 실내공간에 대한 공간이용자의 공간감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2.11): 239-244.
- [4] 서울로7017 홈페이지 <http://seoullo7017.seoul.go.kr/>